이하이·폴킴·나훈아·우주소녀 돌아온 오프라인 공연 '희망가'

26·27일 '뷰티풀 민트 라이프' 야외 페스티벌
가황 나훈아 7·8월 3개 도시에서 콘서트 재개

나훈아 콘서트 포스터

"요놈의 코로나19 멱살이라도 비틀어 희망가를 부르자."

가수와 관객이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희망의 무대'가 조금씩 펼쳐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대중음악 공연 관객 제한을 99명에서 4000명까지 늘리고,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면서 대중음악계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팬들은 물론 가요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연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21'이다. '코로나 사태' 후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첫 야외 페스티벌이다. 주최사 측은 현장 방역을 위해 체조경기장 전체를 '방역 센터'로 활용하고 국내 공연 최초로 신속 항원 키트를 활용한 자가 진단을 도입한다.

'떼창'은 금지됐지만, 첫날에는 정준일, 페퍼톤스, 이하이, 폴킴 등이, 다음날엔 엔플라잉, 데이브레이크, 소란 등이 무대를 꾸민다.

'가황'도 무대로 돌아온다. 연말 공연을 전면 취소하며 다음을 기약했던 나훈아가 '어게인 테스형'이라는 타이틀로 7~8월 대구·부산·서울 3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연다. 다음달 16~18일 대구 엑스코(EXCO) 동관, 다음달 23~25일 부산 벡스코(BEXCO), 서울 체조경기장에서는 8월27~29일 열린다.

나훈아 소속사 예아라 측은 "평범한 일상마저 가두어버린 세상, 요놈의 코로나19를 멱살이라도 비틀어 답답한 세상에 희망가를 소리쳐 부를까 한다"고 밝혔다.

걸그룹 우주소녀는 7월10일 서울 광장동 예스24 라이브홀에서 팬 350명을 초대하고 팬 파티 '웰컴 투 우소가(家)'를 연다. 행사를 주최하는 유니버스 측은 "객석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돌그룹 골든차일드도 다음 달 17~18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서머 브리즈'라는 타이틀로 온·오프라인 공연을 연다.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해 하루 700명씩의 관객을 오프라인으로 만날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오늘 최강의 부대 탄생…채널A '강철부대'가 남긴 것들

1 2049 폭넓은 시청층
2 시즌제 가능성 활짝
3 일반인 스타들 배출

6.8%…채널A 예능 최고 시청률
제작진 "신선함의 힘" 시즌2 염두
24명 예비역 참가자들 인기 폭발
15·16회 스페셜 편 마지막 인사

CHANNEL A

드디어 최강의 '강철부대'가 탄생한다.

채널A·SKY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가 22일 해군특수전전단(UDT)과 해난구조전대(SSU)의 결승전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해병대 수색대,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 등 총 6개 특수부대 예비역들이 3개월간 치열하게 격돌한 대장정이 이로써 마무리된다. '강철부대'는 '군(軍)'이라는 소재가 남성 시청자에게만 통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남녀노소의 폭넓은 연령층으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에 힘입어 29일과 7월6일 스페셜 방송을 편성해 종영의 아쉬움을 달랜다.

●채널A 역대급 시청률로 '시즌2?'

'강철부대'가 확보한 폭넓은 시청층은 시청률 추이로도 확인된다. 프로그램은 5월18일 방송한 9회가 6.8%(이하 닐슨코리아·전국기준)의 시청률을 넘겨 채널A 역대 예능프로그램 최고치를 기록했다.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2049' 시청률도 이날 3.803%로 신기록을 찍었다. 최근 TV 주 시청층인 중장년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시선까지 사로잡았음을 방증하는 수치다.

안방극장을 넘어 각종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21일 오후 기준 넷플릭스 '한국 TOP 10 콘텐츠' 3위에 랭크됐다. 웨이브와 CJ ENM이 각각 발표한 6월 둘째 주(7일~13일) 주간 예능 차트에서도 각각 6위와 3위에 올랐다.

인기의 비결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각 특수부대의 면모를 전면에 내세운 신선함이 꼽힌다. 연출자 이원웅 PD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조명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제작진의 기획의도가 통한 덕분에 방송사 내부에서는 참가 부대를 추가해 시즌제로 안착시킬 목표도 새롭게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철부대'가 배출한 스타들

인기의 핵심은 단연 총 24명의 예비역 참가자들이다. 특전사 박군(박준우), 해병대 수색대 오종혁 등 연예인 참가자 외에도 다양한 스타가 탄생했다.

UDT(해군특수전전단) 육준서는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끌면서 각종 패션 화보를 휩쓸었다. SSU(해군 해난구조전대) 황충원, UDT 김범석(김민준), SDT(군사경찰 특수임무대) 강준, 특전사 박도현 등도 온라인 팬 카페가 생기는 등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마스터'로 출연한 최영재는 진행 실력까지 인정받아 KBS 2TV '재난탈출 생존왕' 등에도 출연하고 있다.

출연자들은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관심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범석은 최근 스포츠동아 인터뷰에서 "뜻밖의 인기가 놀랍지만 '강철부대'가 준 선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마다 다른 개성을 자랑하는 출연자들은 15·16회를 통해 마지막 인사를 남긴다. 특별 편에 대한 시청자 요청이 쇄도하면서 마련된 무대이다. 제작진은 출연진과 방송인 김성주·장동민·슈퍼주니어 김희철 등 '전략분석팀'의 촬영 후기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담을 계획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채널A·SKY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가 22일 최종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해군특수전전단(UDT)과 해난구조전대(SSU)가 결승전 도전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 사진제공 | 채널A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0108-중-38478호

귀두확대 시술로 조루증 치료!!!

주사로 귀두확대와 동시에 음경확대 가능!

10분 정도의 간편한 시술!!

비뇨기과 전문의 최준호 원장

◆세계적 의료기업 콜로플라스트 2년 연속 초청으로 런던, 미국 글로벌 학술대회 masterclass연수

늘푸른비뇨기과 최준호 원장은 다년간 조루증 치료에 전념하여 오랜 해외 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학식으로 조루증 치료에는 귀두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귀두 확대가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이용하여 귀두와 음경에 캡슐형 히알룬산을 주입하는 확대술이 효과적이다.

이것이 바로 비수술적확대법이며 이는 주사로 간단하게 필러를 음경과 귀두에 주입하여 확대시키는 간편한 시술법이다.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확대되는 효과와 동시에 귀두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있어 사정이 지연되어 조루증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석이조의 시술법이다.

부작용으로는 약한 염증이나 일부 흡수가 될 수 있다.

▶국소마취로 시술시간은 10분!
▶시술후 술, 샤워는 당일부터 가능!
▶성관계는 일주일 후부터 가능!
▶당일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

늘푸른비뇨기과의원 02)2272-5588/ www.egclinic.co.kr 종로3가역 14번출구앞 6층